

# 《三國志演義》의 國內 流入과 出版

- 조선 출판본을 중심으로\*

閔寬東\*\*

## <目 次>

1. 序 論
2. 《삼국지연의》의 국내 유입
3. 《삼국지연의》의 국내 출판
  - 1) 《三國志通俗演義》
  - 2)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 3)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
4. 結 語

## 1. 서론

中國通俗演義 가운데 우리의 고전문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三大作品을 꼽으라면 《三國志演義》(三國志)·《西漢演義》(楚漢志)·《東周列國志》(列國志)를 꼽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소설들은 조선시대 이래로 번역은 물론 번안 및 재창작까지 이루어지며 폭넓게 수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판본과 필사본 및 번역본의 수량을 보면 그 규모와 영향력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三大 演義類小說 가운데에서도 으뜸은 《三國志演義》라고 할 수 있다. 《三國志演義》는 연의류 소설뿐만 아니라 중국고전소설 가운데에서도 우리 고소설의 형성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이다.(NRF-2010-322-A00128).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중국통속소설 가운데 《三國志演義》는 가장 이른 시기에 국내에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출판까지 이루어진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국내 소장 중국고전소설 판본목록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판본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또 출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문을 그대로 출판한 覆刻出版과 翻譯出版 및 翻案出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야말로 조선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임이 확인된다. 특히 모종강본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판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걸친 腹板의 흔적이 보여 당시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지연의》의 국내유입과 조선 출판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어떤 판본이 국내 유입되었으며 출판되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재 학계에서 異論紛紛한 판본의 유입시기와 출판시기에 대한 각종 문제를 위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2)</sup>

## 2. 《삼국지연의》의 국내 유입

《三國志演義》는 羅貫中에 의해 편찬된 長篇 歷史小說이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元代 至治年間(1321-1323년) 建安 虞氏의 新刊本 《全相平話五種》中 《三國志平話》가 있었다. 이 판본은 《삼국지연의》의 출판에 기초가 된 講史話本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속연의의 시작은 羅貫中의 《三國志通俗演義》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三國志演義》의 가장 이른 판본은 明代 嘉靖元年 任午(1522年) 刊行本으로 총 24권 240則으로 되어 있다.<sup>3)</sup> 嘉靖

1) 통속백화소설 가운데는 《三國志演義》가 가장 많았고 문언소설 가운데 《剪燈新話》 판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본문에서는 《삼국지연의》의 유입시기와 조선 출판본에 대한 고증을 위해 필자가 1995년 《중국소설논총》 제4집에 게재한 〈삼국연의 국내유입과 판본 연구〉의 자료를 일부 재인용하였으며 또 오류부분과 신 자료 발굴부분도 함께 수정보완 하였음을 밝혀둔다.

3) 이 책의 서두에 '庸愚子 弘治 7年(1494年) 序'와 '修髯子嘉靖元年引'이 있으며 또 題에는 '晉平

以後 明·清代에 걸쳐 10餘 種의 版本이 있으며 모두가 서로 다른 版種을 이루고 있다.

羅貫中의 《三國志通俗演義》가 출간된 이후 나온 주요 판본에는 周日校刊本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으로 明 萬曆 辛卯年(1591)에 간행한 12卷 240則이 있고, 또 一名 余象斗本으로 알려진 《新刻按鑑全像批評三國志傳》은 萬曆 20年(1592)에 20卷 240則으로 나왔으며, 얼마 후 李卓吾(1527-1602년)編輯의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가 全 120回本(不分卷)으로 출현하였다.<sup>4)</sup> 그 후 淸初 康熙 18年(1679년)前後에 이르러 毛綸·毛宗崗 父子가 거듭 修訂한 《毛宗崗評三國志演義》가 나오며 清代 이래로 주종을 이루는 通行本이 되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판본들은 모두 국내에 유입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소장된 《三國志演義》 판본과 관련 문헌기록을 두루 조사해 보았다.

먼저 《삼국지연의》의 토대가 된 正史 《三國志》의 국내 최초 流入記錄은 令狐德棻(583-666年)의《周書》(列傳 第41, 高句麗條)<sup>5)</sup>에 처음 보인다. 《周書》에 “(高句麗)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 시대에 국내에 유입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책은 그 후 고려 및 조선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小說 《三國志》의 국내 유입은 고려 말기로 추정되고 있다.<sup>6)</sup> 즉 고려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老乞大》의 末尾部分에 고려 상인이 책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구입한 서적목록 가운데 《三國志平話》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sup>7)</sup>

陽侯陳壽史傳, 後學羅貫中編次라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이 최초 판본이 아니며 그 이전에 선행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4) 그 외 淸初 遺香堂本 《三國志》(24권 120회본)와 《李笠翁批閱三國志》(24권 120회본)가 출간되었으나 크기는 이탁오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5) “(高句麗)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周書》. 그 외에도 李延壽의 《北史》(列傳 第82, 高句麗條)에 “書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라고 기록되어 있고, 《宋史》(권487, 列傳 第246, 外國3, 高麗條)에도 高麗 顯宗 7年(1016)에 戶部侍郎 郭元이 송나라 眞宗으로부터 《九經》·《史記》·《兩漢書》·《三國志》·《晉書》 등을 下賜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6) 이은봉, 〈삼국지연의의 수용 양상〉, 인천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6.12. 23쪽 참고.

그 후에 출현한 판본이 바로 나관중본 《삼국지연의》이다. 필자가 조사한 국내 소장본 《삼국지연의》書目은 《三國志通俗演義》·《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新鉅全像大字通俗演義三國志傳》·《貫華堂第一才子書》·《第一才子書》·《第一才子書三國志》·《第一才子書繡像三國志演義》·《四大奇書第一種》·《四大奇書第一種三國志》·《四大奇書第一才子書》·《繡像金聖歎批評三國志》·《繡像全圖三國演義》·《繡像第一才子書》·《增像全圖三國志》·《增像繪圖三國演義》·《增像全圖三國志演義》·《增像全圖三國演義》·《增像三國全圖演義》·《增像全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增像全圖第一才子三國志演義》·《繪圖三國演義》·《繪圖三國志演義》·《繪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精校繪圖三國志演義》·《精校全圖繡像三國志演義》·《精校全圖足本鉛印三國志演義》·《圖像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繪本通俗三國志》等 약 30여 종이 확인된다. 그 중 대부분은 羅貫中(明)撰·金聖歎(淸)編·毛宗崗(淸)評本이며 出刊年度는 清代 中·後期 刊行本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sup>8)</sup>

그중 가장 이른 판본인 羅貫中本 《삼국지통속연의》의 국내 유입은 늦어도 1560년대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박재연에 의하여 발굴된 조선 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이양재소장본)가 대략 15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국내 金屬活字本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입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 羅貫中本 《三國志演義》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이른 판본으로 明代 嘉靖 任午(1522년) 간행본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유입시기는 1522년-1560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에서 출판된 후 바로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

7) 更買些文書一部, 四書都是晦庵集註, 又買一部, 毛詩, 尚書, 周易, 禮記, 五子書, 韓文, 柳文, 東坡詩, 詩學, 大成押韻, 君臣故事, 自治通鑑, 翰院新書, 標題小學, 貞觀政要, 三國志平話. 這些貨物都買了也. 《老乞大》, 한국학중앙연구원(C138), 47a-47b쪽. 대략 고려말기에 유입된 통속소설로는 《삼국지평화》이외에도 《朴通史諺解》를 통해서 《古本西遊記》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三國志平話》本이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되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이전까지 1569년 《朝鮮王朝實錄》(宣祖 卷3)中 “기대승이 언급한 기록”에 의존하던 기존의 定論을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료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8) 1995년 《중국소설논총》 제4집에 게재된 〈삼국연의 국내유입과 판본 연구〉에서는 8종으로 조사되었으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인해 30여 종으로 늘어나 수정을 하였다.

나 고전문헌상에 보이는 최초기록은 여전히 《朝鮮王朝實錄》(宣祖 卷3, 1569년)의 기록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sup>9)</sup>

주상전하께서 문정전 석강(저녁에 궁중에서 유생들이 모여 경전을 강론함)에 나아가니, 《近思錄》 제2권을 강론해 올렸다. 기대승이 나아가 아뢰기를, “지난번 張弼武를 불러 인견하실 때 전교하시기를 ‘張飛의 고향 한마디에 千軍萬馬가 달아났다’라고 한 말은 사실 正史 《三國志》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三國志衍義》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여 소신은 보지 못하였는데, 주변의 친구들에게 들으니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말이 매우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天文·地理에 관한 책은 이전에는 숨겨졌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 역사 기록의 경우 처음에 실전되었던 것을 후대에 臆測하여 쓰기가 어려운 것인데도 여기에는 敷衍하고 增益하여, 매우 괴이하고 허망하였습니다. 신이 뒤에 그 책을 보니 단연코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무리배가 잡된 말을 모아 옛날이야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雜駁하여 무익할 뿐 아니라 크게 의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 책을 우연히 보셨다니 참으로 송구하고 유감스럽습니다. 그 중의 내용을 들어 말씀드리면 ‘董承의 衣帶詔書’ 이야기나 ‘赤壁 싸움에서 이긴 것’ 등은 각각 괴상하고 허탄한 일이거나 근거 없는 말로 부연하여 만든 것입니다. 주상께서 혹시 이 책의 근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이 책은 《楚漢衍義》등과 같은 책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종이 나왔으며, 모두가 의리를 심히 해치는 것들입니다.” 詩文·사화(詞華)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剪燈新話》나 《太平廣記》와 같은 책은 사람의 심지(心志)를 오도하기에 족한 책들입니다. (壬辰...上御夕講于文政殿. 進講近思錄第二卷. 奇大升進啓曰, 頃日張弼武引見時, 傳教內張飛一聲走萬軍之語, 未見正史, 聞在三國志衍義云, 此書出來未久, 小臣未見之, 而或因朋輩間聞之, 則甚多妄誕. 如天文地理之書則, 或有前隱而後著, 史記則初失其傳, 後難臆度, 而敷衍增益, 極其怪誕. 臣後見其冊, 定是無賴者, 哀集雜言, 如成古談, 非但雜駁無益, 甚害義理. 自上, 偶爾一見, 甚爲未安, 就其中而言之, 如董承衣帶中詔及赤壁之戰勝處, 各以怪誕之事, 衍成無稽之言. 自上, 幸恐不知其冊根本, 故敢啓, 非但此書, 如楚漢衍義等書, 如此類不一, 無非害理之甚者也. 詩文詞華 尙且不關 况剪燈新話 太平廣記等書 皆足以誤人心志者乎.) 〈宣祖實錄, 卷三·24~5, 宣祖2年6月, 壬辰〉

9)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아세아문화사, 2007.10. 156-157쪽.

이처럼 1569년 이전에 기대승은 물론 宣祖까지 《삼국지연의》를 읽었다는 점과, 게다가 宣祖는 《삼국지연의》의 문장을 인용까지 하며 박식함을 자랑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意味있는 기록이다. 또 당시 《삼국지연의》뿐만 아니라 《초한연의》를 비롯한 연의류 소설과 《太平廣記》 및 《剪燈新話》까지도 유입되어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서지상황과 국내 출판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조선에 유입된 판본은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가 확실해 보인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나온 柳希春(1513-1577년, 字: 仁仲, 號: 眉岩)의 《眉岩日記》(癸酉 [1573] 正月十七日條 / 二十一日條)에 보면:

十七日 晴 朝師傅朴光玉景瑗來訪. 余語及三國志 朴以丈祖 徐同知社 藏有不秩者 二十餘冊 當奉贈云. (17일 맑음 아침에 사부 景瑗 朴光玉이 방문하였다. 내가 《三國志》에 대해 말하자 박광옥의 처조부 徐同知의 사당에 장서 잔본 20여 책이 있어 마땅히 증여하겠다고 하였다.)

二十一日 師傅朴光玉 送三國志二十冊來. 雖未備者十冊 然亦感喜. 光玉字景瑗 光鼎之弟也. (21일 사부 朴光玉이 《三國志》 20책을 보내 왔다. 비록 10책이 未備되어 완전하지 않았으나 매우 기뻐 감격하였다. 광옥은 자가 景瑗으로 光鼎의 동생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희춘이 언급한 完帙本 《三國志》 30冊이다. 羅貫中本 《三國志通俗演義》는 24권 24책으로 되어 있고 周曰校本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는 12권 12책이며, 余象斗本 《新刻按鑑全像批評三國志傳》은 20권 20책, 清初 遺香堂本 《三國志》는 24권 120회본, 李漁本 《李笠翁批閱三國志》는 24권 120회본으로 유희춘이 언급한 完帙 30冊本과 다르기 때문이다. 혹 正史 《三國志》를 指稱하였나 서지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이도 아닌듯하다. 그렇다면 1573년경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30책본 《삼국지연의》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 판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 후에 유입된 판본은 周曰校本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로 보인다. 이 책은 이미 국내에서 覆刻本으로 출간이 되었기에 流入與否에 異論

이 있을 수 없다. 그 외에 余象斗本《新刻按鑑全像批評三國志傳》과 李卓吾本《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가 유입되었는지는 현존하는 판본과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선에서 일어난 《삼국지연의》의 熱風와 관심으로 보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毛綸·毛宗崗父子가 修訂本《毛宗崗評三國志演義》는 국내에서 《四大奇書第一種》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출판되었기에 유입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국내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국 판본은 金聖歎(淸)編, 毛宗崗(淸)評本이 압도적이다.

또 毛本《三國志演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기록이 安鼎福(1712-1791年)의 《順庵集》에 나온다.

余觀唐板小說，有四大奇書。一三國志，二水滸志，三西遊記，四金瓶(屏)梅也。試三國一匣，其評論新奇，多可觀，其凡例亦可觀。其序文亦以一奇字命意，而其文法亦甚奇。<sup>10)</sup> 考其人則金人瑞毛宗崗也，考其時則順治甲申年(1644)也。未知金人瑞毛宗崗爲何如人，而順治甲申歲，此天地變易，華夏淪沒之時。中原衣冠，混入于剃髮左衽之類，文人才子之怨抑而不遇者，其或托此而寓其志也!(내가 中國에서 관각된 小說을 보았는데, 그 중에 四大奇書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三國志》이고, 둘째는 《水滸志》이며, 셋째는 《西遊記》이고, 넷째는 《金瓶(屏)梅》이다. 試驗삼아 《三國志》 한 帙을 살펴보니, 評論이 아주 新奇해서 볼 만한 것이 많고, 그 凡例 또한 볼 만하다. 序文 역시 온통 기특함으로 뜻을 담았고, 그리고 그 글에 나오는 讀三國志法 또한 아주 奇特하다. 그 책들을 批評해서 펴낸 사람을 考察해보니 金人瑞와 毛宗崗이고, 그 책이 나온 時期는 順治 甲申年(1644年)이었다. 金人瑞와 毛宗崗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順治 甲申年은 天地가 뒤바뀌어 中華(명나라)가 沒落하게 된 때이다. 中國의 風俗들이 滿族의 辮髮과 左衽하는 오랑캐 것으로 섞여 들어가게 되며, 文人과 才子들이 抑鬱하고 不遇한 심정을 여기에 依託해서 寓意한 것이리라.)<sup>11)</sup> 《順庵雜誌》 42冊.

이처럼 1700년대에 유입된 것은 물론 판본의 서지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10) “而其文法亦甚奇”에서 “其文法”은 바로 모종강이 쓴 “讀三國志法”을 의미한다.

11) 安鼎福, 《順庵集》, 《順庵雜著》 42冊.

기술하고 있다. 특히 “讀三國志法”과 “凡例” 및 金聖歎序文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毛本の 《第一才子書》일 가능성이 크다.

또 국내 소장된 《三國志演義》 판본의 출판사를 조사해보니 “經國堂”·“九思堂”·“致和堂”·“宏道堂”·“文興堂”·“同德堂”·“同志堂”·“槐蔭堂”·“上海掃葉山房”·“上海江左書林”·“上海書局”·“鑄記書局”·“上海廣益書局”·“上海錦章書局”·“三多齋藏板”·“同文書局”·“成文信”·“上海時中書局”·“上海善成堂”·“小石山房”·“上海蔣春記書”·“上海中新書局”·“天寶書局”·“鴻文書局”·“上海圖書”·“懷德堂圖書”·“上海文盛書局”·“蘇州綠啓堂”·“翠筠山房”·“上海同文晉記書局”·“上海文華書局”·“同文升氣書局”·“同女普氣書局”·“大阪岡田茂兵衛” 등 대략 30여 개 출판사로 집계된다. 이들 판본 상당수는 1800년대 중·후기에 중국에서 유입된 판본이며 또 대부분 上海에서 出版한 판본이다. 간혹 일본판본도 눈에 띈다.<sup>12)</sup>

이렇게 《삼국지연의》의 국내 유입은 高麗末期부터 朝鮮末期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 책 가운데 善本은 곧바로 출판으로 이어졌고 그 후 1800년대 중기이후로 들어서는 번역출판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이러한 가운데 續書들까지 국내에 유입되는데 이러한 소설들이 바로 《後三國演義》·《後三國石珠演義》이다. 그중 楊爾曾<sup>13)</sup>의 《後三國演義》<sup>14)</sup>는 一名 《三國演義續編》 혹은 《後三國東西晉演義》라고도 하는 演義小說로 총 12卷 50회로

12) 앞에서 언급한 국내 유입된 중국판본의 서목과 출판사에 대한 자료는 필자기 기준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 발굴된 자료를 합하여 다시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또 새로 발굴된 일본 판본은 서명이 《繪本通俗三國志》로 池田東籬校正, 葛飾戴斗畫圖, 大阪 岡田茂兵衛, 天保 7-12年(1836-1841)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판본은 일제시대 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3) 編者は 楊爾曾(1575-?) / 字는 聖魯이고 號는 雉衡山人, 臥遊道人, 雉衡逸史, 六橋三竺主人 등)으로 浙江錢塘(지금의 杭州) 保安坊羊牙蕩 출신이다. 龔敏, 〈明代出版家楊爾曾編撰刊刻考〉, 《文學新論》, 2009年 12月 第10期, 197쪽 참조.

14) 이 책의 내용은 晉 武帝 司馬炎의 즉위 초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당시 晉의 동쪽에 있던 吳나라를 치기위해 晉 武帝는 王渾과 王浚 등을 파견하여 강동정벌에 나선다. 王浚의 군대가 석두성에 도착하자 吳나라 군주 孫皓는 항복하였다. 그러나 王渾은 王浚이 자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孫皓의 항복을 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陰害를 한다. 그 후 武帝는 王浚을 大將軍에 봉하고 온종일 淫遊를 즐기면서 政事를 돌보지 않았다. 武帝는 지나치게 여색에 빠진 나머지 질병에 감염되어 죽게 된다. 이후에 兩晉은 德文까지 156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결국 劉裕에 이르러 멸망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루어진 小說이다.

이 판본은 世德堂에서 출간하여 크게 유행하였는데, 그 후에 楊爾曾은 萬曆 40年(1612) 이전에 泰和堂主人의 부탁을 받고 《東西晉演義》라는 이름으로 再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武林刊本이다.<sup>15)</sup> 또 淸 嘉慶 4年(1799) 敬書堂에서 明本을 底本으로 다시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上圖下文의 형식으로 插圖左右에 표제를 달았다.<sup>16)</sup>

《後三國志》가 國內에 流入된 시기는 대략 조선 중기이전으로 추정된다. 즉 1762년에 나온 윤덕희의 《小說經覽者》에 이 책의 서명이 언급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國內에는 慶熙大에 錦章圖書局에서 간행한 乙亥(1875)의 판본인 《繡像後三國志演義》가 소장되어 있다.<sup>17)</sup>

그 외 《後三國石珠演義》는 30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는 梅溪遇安氏로 알려져 있다. 梅溪遇安氏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12권 50회로 되어있는 《後三國石珠演義》<sup>18)</sup>는 《後三國演義》와는 다른 책이다. 또 《삼국지연의》와 관계가 없는 책이다.

- 
- 15) 현재 北京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明 武林刊本은 《新鐫出像東西晉演義》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또한 明 武林刊本은 “武林夷白主人重修”, “泰和堂主人參訂”이라 되어 있다. 12卷 50회로 “雉衡山人題”와 “東西晉演義序”가 있으며 附圖와 100쪽의 插圖도 있다. 萬曆 40년에 大業堂에서 《東西兩晉志傳》을 간행할 때 《東西晉演義》에 있던 楊爾曾의 序文을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龔敏, 〈東西晉演義與東西兩晉志傳關係考〉, 《東華人文學報》, 東華大學 人文社會科學學院, 2008年 1月 第12期, 145-166쪽 참조.
- 16)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 文學研究所 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0년, 169-173쪽 참조.
- 17) 민관동 외 공저, 《한국 소장 중국통속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년 4월, 95-97쪽.
- 18) 현존하는 판본은 耕書屋刊本으로 글머리에 《後三國演義》라 쓰여 있으나 目錄 및 每回 本文은 卷 끝에 모두 《後三國石珠演義》라 쓰여 있다. 序에 의하면 “庚申 4월 澹園主人이 綠竹專에서 씀”이라 하였는데 연호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庚申은 乾隆 5年(1740)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晉武帝 太康 年間に 潞安州 發鳩山 중턱에 石珠라는 천상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서 弘祖를 만나게 된다. 石珠는 후에 弘祖와 함께 천하를 어지럽히는 무리들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다. 그 후 국호를 趙라고 칭하며 弘祖를 大元帥로 삼았다. 이때 吳禮가 나타나 石珠가 왕위에 오른 일을 꾸짖자 왕위를 弘祖에게 이양하니 弘祖가 漢王이 되었다. 그 후 石珠는 惠女庵으로 돌아가 3년을 수련하고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로 《삼국지연의》와는 무관한 책이다.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 文學研究所 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0년, 496쪽 참조.

이 책은 俞晚柱의 《欽英》(1775-1787年間の日記)에 《石珠演義》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780년대 이전에는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國內에 소장된 中國木版本은 出版年代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清末 版本으로 추정되며 潤松文庫에 4冊本이, 國立中央圖書館에 6冊本이 각각 소장되어 있다.<sup>19)</sup>

### 3. 《삼국지연의》의 국내 출판

국내에 유입된 《三國志演義》는 1500년대 중기에 처음으로 출판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간행이 되었다. 최초의 국내 간행본은 羅貫中本 《三國志通俗演義》이며, 그 후 周曰校本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와 毛宗崗評點의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이 차례로 간행되었다. 1800년대에 들어서는 翻譯本 《三國志》도 방각본으로 출간되었다.

#### 1) 《三國志通俗演義》

이 책의 국내 출간은 근래 박재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먼저 중국에서 출간된 《三國志通俗演義》의 서지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志通俗演義》는 24卷 240則으로 명대 嘉靖 壬午年(1522)에 간행된 大字本이다. 서명은 “晉 平陽侯 陳壽史傳, 後學 羅本貫中編次”로 되어있으며, 卷頭에는 “弘治 甲寅年(弘治 7年/1494년) 庸愚子の 序文”이 들어있다. 또 “嘉靖 壬午 關中修髯子引”이 있고 “關西張尙德章”이 있다. 판심은 黑口이며 한 면에 9行 17字로 되어있다. 插畫는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판본이지만 《三國志通俗演義》의 원판본이라고는 할 수 없다.<sup>20)</sup>

19) 민관동 외 공저, 《한국 소장 중국통속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년 4월, 97-98쪽.

20) 오순방 외 공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울산대출판부, 1993년, 113쪽 참고.

최근 박재연에 의하여 새로 발굴된 朝鮮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는 1책(零本)으로 卷8(上·下)이 남아 있으며 현재 이양재가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크기가 30.5×19.5cm, 半郭은 23.2×16.5cm. 四周雙邊이다. 有界에 11行 20字로 되어 있으며 大黑口 上下內向 三葉花紋魚尾이다. 版心題는 “三國志”이며, 표지는 찢겨져 나갔다. 하지만 卷之八 下의 첫면을 통해 책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卷8 下卷의 첫 면 제1행에 “三國志通俗演義 卷之八下”, 제2행에 “晉平陽侯陳壽史傳”, 제3행에 “後學羅本貫中編次”로 되어 있어 이 책의 全名이 “三國志通俗演義”이며 각 권이 上下로 나누어져 있음이 확인된다.<sup>21)</sup>

필자는 이 책의 원형을 알아보기 위해 回目を 고찰한 결과 이 책은 12卷 12冊 240則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嘉靖 壬午本이 24卷 24冊 240則本으로 되어 있고 周曰校本은 12卷 12冊 240則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周曰校本에 가깝다. 이 책이 12卷 12冊 240則本임을 확인하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嘉靖 壬午本은 24卷 24冊 240則으로 한권에 10則으로 구성된 반면, 周曰校本(甲本)은 12卷 12冊 240則으로 한권에 20則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발굴된 朝鮮活字本은 卷8로 上·下로 구성되었다.

| 則    | 《三國志通俗演義》卷之八上 | 則    | 《三國志通俗演義》卷之八下 |
|------|---------------|------|---------------|
| 141則 | 缺             | 151則 | 關雲長大戰徐晃       |
| 142則 | 缺             | 152則 | 關雲長夜走麥城       |
| 143則 | 缺             | 153則 | 玉泉山關公顯聖       |
| 144則 | 缺             | 154則 | 漢中王痛哭關公       |
| 145則 | 缺             | 155則 | 曹操殺神醫華陀       |
| 146則 | 缺             | 156則 | 魏太子曹丕秉政       |
| 147則 | 龐德擡檣戰關公       | 157則 | 曹子建七步成章       |
| 148則 | 關雲長水滄七軍       | 158則 | 漢中王怒殺劉封       |
| 149則 | 關雲長刮骨療毒       | 159則 | 廢獻帝曹丕篡漢       |
| 150則 | 呂子明智取荊州       | 160則 | 缺             |

21) 박재연, 《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역락, 2012년 12월, 250쪽 참조.

이상의 도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嘉靖 壬午本은 권15-권16에 해당하고 周曰校本(甲本)의 권8에 해당한다. 殘存하는 朝鮮活字本(卷8, 上/下) 147則-159則까지의 回目을 비교해 보니 세권모두 완전히 일치하였다. 특히 권수에 있어서도 12권 12책의 주왈교본과 거의 일치하나 다만 朝鮮活字本은 每卷을 上·下로 나누는 것이 다를 뿐 12권 12책의 구성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새로 발굴된 朝鮮活字本의 원형은 판본의 구성에 있어서 嘉靖 壬午本보다는 周曰校本(甲本)에 가깝다. 그렇다고 주왈교본의 書名과 版心題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다.<sup>22)</sup> 그러기에 이 책은 총 12卷 12冊 240則으로 구성된 독자적 판본이며 주왈교본의 선행본임이 확인된다.

이 책은 대략 1560년대 초·중반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三國志演義》 간행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韓中日 삼국을 통틀어 첫 번째 금속 활자본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많은 중국소설들은 대부분 문인소설인데, 백화소설의 간행으로는 《三國志通俗演義》가 처음<sup>23)</sup>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국내 유입시기와 출간시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 異論이 紛紛하였다. 먼저 문제가 된 《朝鮮王朝實錄》(宣祖 卷3, 1569년)의 기록을 다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주상전하께서 문정전 석강(저녁에 궁중에서 유생들이 모여 경전을 강론함)에 나아가니, 《近思錄》 제2권을 강론해 올렸다. 기대승이 나아가 아뢰기를, “지난번 張弼武를 불러 인견하실 때 진교하시기를 ‘張飛의 고향 한마디에 千軍萬馬가 달아났다’라고 한 말은 사실 正史 《三國志》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三國志衍義》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여 소신은 보지 못하였는데, 주변의 친구들에게 들으니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말이 매우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天文·地理에 관한 책은 이전에는 숨겨졌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 역사 기록의 경우 처음에 실전되었던 것을 후대에 臆測하여 쓰기가 어려운 것인데도 여기에는 敷衍하고 增益하여, 매우 괴이하고 허망하였습니다. 신이

22) 版心題는 嘉靖 壬午本과 朝鮮活字本은 “三國志”이고 周曰校本은 “三國演義”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嘉靖 壬午本에 가깝다.

23) 박제연·김영교주, 〈새로 발굴된 조선 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하여〉, 《三國志通俗演義》, 학고방, 2010. 12-23쪽 참조.

뒤에 그 책을 보니 단연코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무리배가 잡된 말을 모아 옛날이야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中略〉...《전등신화》는 놀라 우리만큼 低俗하고 외설적인 책인데도 교서관이 재료를 사사로이 지급하여 刻板하기까지 하였으니, 識者들은 모두 이를 마음 아파합니다. 그 板本을 제거하려고도 하였으나 그대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일반 여염 사이에서는 다투어 서로 인쇄하여 보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남녀의 음행과 상도에 벗어나는 괴상하고 신기한 말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는 괴상하고 誕妄함이 이와 같은데도 印出하기까지 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어찌 무식한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壬辰...上御夕講于文政殿. 進講近思錄第二卷. 奇大升進啓曰, 頃日張弼武引見時, 傳教內張飛一聲走萬軍之語, 未見正史, 聞在三國志衍義云, 此書出來未久, 小臣未見之, 而或因朋輩間聞之, 則甚多妄誕. 如天文地理之書則, 或有前隱而後著, 史記則初失其傳, 後難臆度, 而敷衍增益, 極其怪誕. 臣後見其冊, 定是無賴者, 哀集雜言, 如成古談...〈中略〉...剪燈新話鄙褻可愕之甚者, 校書館私給材料至於刻板, 有識之人, 莫不痛心, 或欲去其板本而因循至今. 閭巷之間, 爭相印見, 其間男女會淫神怪不經之說, 亦多有之矣. 三國志衍義則怪誕如是, 而至於印出, 其時之人豈不無識.)〈宣祖實錄, 卷三·24~25, 宣祖2年6月, 壬辰)

위에 언급된 “此書出來未久”와 “三國志衍義則怪誕如是, 而至於印出”이라는 문장인데 이것에 대해 유세덕과 박재연은 조선에서 출판된 판본 즉 근래 새로 발굴된 조선활자본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sup>24)</sup> 그러나 유탁일은 반대로 여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중국에서 간행되어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sup>25)</sup> 김문경도 “出來”가 “나오다”라는 의미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미이며, “印出”역시 중국에서 인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26)</sup>

필자의 견해로는 유세덕과 박재연의 논리가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기대승이 《三國志演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즉 1569년 전후에는 이미 《新序》(1492-1493년)·《說苑》(1492-1493년)·《西陽雜俎》(1492년)·《訓世評

24) 劉世德, 〈三國志演義朝鮮銅活字殘本研究之一·二〉, 《前近代 동아시아 小說의 交流》, 성균관 대학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학술회의, 2010년 8월 10일, 56-58쪽 참고.

박재연, 《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역락, 2012년 12월, 248-249쪽 참고.

25) 柳鐸一, 〈三國志通俗演義의 傳來版本과 시기〉, 《碧史李佑成先生停年退職紀念國語國文學論叢》, 여강출판사, 1990년, 771쪽 참고.

26) 金文京, 〈朝鮮王朝實錄中 有關三國志衍義記載的 詮釋〉, 《第十一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位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 嘉義大學, 2012년 8월 21-22일, 別刷本.

話》(1473년, 1480년, 1518년)·《太平廣記》(1460년경), 《列女傳》(1543년)·《博物志》(1568년이전)·《嬌紅記》(1506년 [推定])·《剪燈新話句解》(1549년, 1559년, 1564년)·《剪燈餘話》(1568년이전)·《三國志通俗演義》(1560년대初·中期)·《花影集》(1586년이전)·《效顰集》(1568년이전)·《玉壺冰》(1580년)·《兩山墨談》(1575년) 등<sup>27)</sup> 수많은 중국고전소설들이 국내에서 출판되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1560년 초·중기에 간행된 조선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또 상기 인용문에서도 1549년과 1559년 및 1564년에 교서관에서 판각된 《剪燈新話句解》의 印出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삼국지연의》를 논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새로 발굴된 朝鮮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는 1522년에 나온 嘉靖 壬午本과 周日校本 사이에 출간되었고, 또 중국에서는 逸失된 판본을 覆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박재연은 “주왈교본 갑본을 모본으로 하면서도 嘉靖 壬午本을 참고하여 교감을 더하고 상·하권으로 분류하여 간행된 독자적인 판본이다.”<sup>28)</sup>라고 하였다. 사실 조선활자본이 상·하권으로 분류한 점은 비록 독자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版式이나 書名, 版心題 등이 오히려 주왈교본 갑본이 아닌 嘉靖 壬午本과 동일점, 조선활자본의 본문이 嘉靖 壬午本이나 周日校本 어느 판본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sup>29)</sup>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엽봉춘본과 일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책은 오히려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실된 또 다른 판본을 조선에서 복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사실 국내에서 독자출판하면서 원판본의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어도 내용을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조선에서 이미 복각한 周日校本 《新刊校正古本大宇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와 毛宗崗評點의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의 관례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27)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문화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30집, 2012년 1월, 230쪽.

28) 박재연, 《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역락, 2012년 12월, 273쪽.

29) 박재연은 가정임오본과 다르면서 주왈교갑본과 일치하는 것이 500여 자라면, 주왈교갑본과 다르면서 가정임오본과 일치하는 것은 200여 자로 조선활자본이 주왈교갑본에 더 가깝다고 하였다.

또 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고전소설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考事撮要》에 유독 《三國志通俗演義》 출판기록이 없음을 기이하게 여겨왔다. 《攷事撮要》는 宣祖 1年(1568) 刊行本과 宣祖 18年(1585) 刊行本에 총 988종의 국내 출판 서적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sup>30)</sup> 대략 임진왜란 이전에 출간된 책들은 총망라되었다고 보이는 책인데도 특이하게도 《三國志通俗演義》만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전등신화구해》의 출판에 대해 언급한 “校書館私給材料至於刻板”(교서관이 재료를 사사로이 지급하여 刻板하기까지 하였으니)이라는 문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당시 간행물이 꼭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서적을 출판·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적 출판권을 쥐고 있는 중앙 고위관료의 개인적 취향 및 사적인 경로의 청탁을 통해 이러한 서적의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31)</sup> 즉 국가의 공식적인 출판보급이 아니라 사적인 출판이라는 점이다. 일종의 官刻의 성격을 띤 私刻인 셈이다. 그러기에 이 책이 공식적인 官刻이 아닌 비공식적인 책이기에 《考事撮要》에서도 등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사적인 출판이기에 출판된 부수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0) 이 책은 魚叔權 등이 明宗9年(1554)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상·중·하 3권과 부록으로 엮은 것이다. 필자는 《고사촬요》의 조선시대 宣祖 1年(1568)판을 근거로 중국고전소설의 출판목록을 따로 만들었다. 宣祖 1年(1568)판은 557종이 당시에 출판되었다고 언급되었는데 그 출판시기가 當時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개국 이래 출판된 것을 모두 정리해 놓은 것이며, 또 宣祖 18년판 《고사촬요》는 988종이나 늘어났다. 그렇다고 宣祖 1년에서 18년까지 17년 사이에 431종이나 출판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전의 누락된 것을 다시 수집 정리하여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간본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년 8월.

그중 《攷事撮要》에 언급된 중국고전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宣祖 1年(1568) 刊行本 《攷事撮要》: 557종.

原州:《剪燈新話》·江陵:《訓世評話》·南原:《博物志》·淳昌:《效顰集》·《剪燈餘話》·光州:《列女傳》·安東:《說苑》·草溪:《太平廣記》·慶州:《西陽雜俎》·晉州:《太平廣記》.

宣祖 18年(1585) 刊行本 《攷事撮要》: 988종(위에 언급된 목록은 모두 중복되어 생략).

延安:《玉壺水》·固城:《玉壺水》·昆陽:《花影集》·慶州:《兩山墨談》.

31)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東洋漢文學研究》 제30집, 2010년 601-604쪽 참고.

## 2)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는 金陵 周曰校가 간행한 책으로 總 12卷 12冊 240則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明 萬曆 辛卯年(1591)에 13行 26字 (周曰校乙本 基準)로 인쇄된 책이다. 版心の 아래에는 “仁壽堂刊”이라 쓰여있고 그림과 刻印한 사람의 성명으로 “上元泉水王希堯寫”, “白下魏少峰刻”이라 적혀있으며, 또 작자와 편자 및 간행자를 “晉平陽侯陳壽史傳”, “後學羅本貫中編次”, “明 書林周曰校刊行”이라고 적고 있다. 그 외 庸愚子の 序와 關中修髯子の 引이 있다. 속표지의 상단에 周曰校의 識語가 있는데 “이 책은 이미 여러 종이 간행되었지만 오류가 너무 많았다. 부득이 古本을 求한 후 名士들을 請해 재검토하게 하였고 재차 교감을 가하여 圈點을 찍고, 注음을 달고, 해석을 붙이며, 고증을 가하고, 보충을 하였으며, 節目에는 全像을 더하여 이룩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2)</sup> 周曰校本은 현재 5종이 확인된다.

- 1) 周曰校甲本: 殘本(권6/권7/권9), 13행 24자, 無插圖, 中國社會科學院.
- 2) 周曰校乙本: 13행 26자, 有插圖, 中國國家圖書館, 北京大學, 美國 耶魯大學.<sup>33)</sup>
- 3) 周曰校丙本: 乙本과 유사하나 題署가 없다. 臺灣 故宮博物館, 日本 內閣文庫, 蓬左文庫
- 4) 仁壽堂本: 失傳.<sup>34)</sup>
- 5) 朝鮮覆刻本: 13행 24자, 無插圖, 韓國 淸州博物館 等. 周曰校甲本の 覆刻本.

국내 소장 판본은(以下 朝鮮覆刻本) 근래 박재연에 의하여 周曰校甲本の 覆刻本임이 밝혀졌다. 이 책은 총 12卷 12冊 240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에는

32) 蕭相愷 外,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1년, 37쪽 參考.

33) 卷1 第1節에 “上元泉水王希堯寫”, 卷2 第1節에 “白下魏少峰刻”이라 적혀있으며, 中國國家圖書館(권3-6, 권9-10), 北京大學(권1-7), 美國 耶魯大學에 소장되어 있다.

34) 金文京, 〈周曰校甲本三國志演義簡介〉, 《第十二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 復旦大學, 2013년 8월 28일, 1쪽 참고.

弘治 甲寅(1494) 庸愚子の 序와 修髯子の “三國志通俗演義引” 및 “삼국지 인물 표”가 있다. 또 卷一의 첫면에는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卷之一”, “晉平陽侯陳壽史傳”, “後學羅本貫中編次”, “晚學盧陵葉才音釋”,<sup>35)</sup> “明書林周曰校刊行”이라 되어 있다.

먼저 국내 소장된 판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書名                  | 出版事項  | 版式狀況  | 一般事項  | 所藏處                          |
|---------------------|---|---|---|------------------------------|
|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 陳壽(晉)傳, 羅貫中(漢)編次  | 卷12, 1冊, 朝鮮木版本, 29.9×21.8cm, 四周雙邊, 半郭: 21.1×17cm, 有界, 13行24字, 註雙行, 內向一葉花紋魚尾, 紙質: 楮紙                                     | 版心題: 三國演義, 干記: 歲在丁卯, 耽羅開刊                                   | 韓國綜合典籍目錄(山氣文庫)李謙魯            |
|                     | 羅貫中(明)著, 周曰校(明)刊, 濟州, 刊寫者未詳, 丁卯   | 全12卷12冊中10卷10冊(卷2, 3, 4, 6, 7, 8, 9, 10, 11, 12), 朝鮮木版本, 30×21.7cm, 四周雙邊, 半郭: 21.4×17cm, 有界, 13行24字,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 紙質: 楮紙 | 版心題: 三國演義, 卷末題: 三國志傳通俗演義, 欄上筆寫, 干記: 歲在丁卯耽羅開刊, 卷3第1張~5張, 筆寫本 | 國立清州博物館                      |
|                     | 羅貫中(明)編次, 刊年未詳  | 8冊(卷2-卷4, 卷6-卷10) [後印], 朝鮮木版本, 31.1×21.3cm, 四周雙邊, 半郭: 21.4×17.2cm, 有界, 13行24字, 下花內向花紋魚尾, 紙質: 楮紙                         | 版心書名: 三國演義, 印: 震旦學會   | 奎章閣(想白) [古]895.135-N1 1s-v.2 |
|                     |   | 2卷1冊(131張), 朝鮮木版本, 29×21.2cm, 四周雙邊, 半郭: 21.4×16.9cm, 有界, 13行24字, 註雙行, 花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紙質: 楮紙                            | 版心題: 三國演義   | 釜山大學校(干溪文庫) OIC 3-12 71      |
|                     |   | 2卷2冊(零本), 朝鮮木版本, 32.5×21.8cm, 四周雙邊, 半郭: 21.4×17.4cm, 有界, 13行24字, 註雙行, 白口, 上下向混入魚尾, 紙質: 楮紙                               | 漢文, 楷書  | 韓國國學振興院受託, 영양남씨영해시암고택        |
|                     | 1卷1冊(零本), 朝鮮木版本, 31.3×20.5cm, 四周雙邊, 半郭: 21.2×16.7cm, 有界, 13行24字, 註雙行, 白口, 上下向混入魚尾, 紙質: 楮紙 | 漢文, 楷書  | 韓國國學振興院受託, 의성김씨문충공과일과문중                                     |                              |
|                     | 羅貫中(清)編,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 2冊(零本, 卷6, 11), 朝鮮木版本, 28.8×21.3cm, 四周雙邊, 半郭: 21.6×17.1cm, 有界, 13行24字, 上下內向2瓣黑魚尾(一部上下內向黑魚尾)                             | 版心題: 三國演義   | 嶺南大學校 [古南]823.5 삼국지          |
| 陳壽(晉)史傳, 羅本編次, 葉才音釋 | 1冊(卷之1, 卷冊未詳의 零本印), 筆寫本, 31cm, 11行20字, 紙質: 楮紙   | 陳壽, 史傳: 羅本, 編次: 葉才, 音釋, 外題: 三國志, 序: 弘治甲寅(1494)仲春機望庸愚子拜書   | 延世大學校 812.36/18   |                              |

35) 간혹 “晚學盧陵葉才音釋”이 없는 판본도 있음(영남대본 등).

|                                |   |                 |                                  |
|--------------------------------|---|-----------------|----------------------------------|
|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 4冊, 朝鮮木版本, 32.8×22.2cm, 紙質·楮紙   |                 | 韓國國學振興院<br>受託,<br>영양남씨영해난고<br>종택 |
| 陳壽(晉)傳, 羅貫中(明)編, 周曰校(明), 刊寫者未詳 | 1卷1冊(零本, 所藏本:卷5), 朝鮮木版本, 25×19.9cm, 四周雙邊, 半郭:21.5×17cm, 有界, 13行24字, 上內1葉(間混2葉) 花紋魚尾, 紙質·楮紙      | 表題:三國志傳通俗演義     | 東國大學校<br>D819.34 17*             |
|                                | 全12卷12冊中10卷10冊(卷1,2,3,4,6,8,9,10,11,12), 朝鮮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3行24字, 花紋魚尾(黑魚尾混在), 紙質·楮紙            |                 | 鮮文大<br>中韓翻譯文獻研究<br>所<br>(朴在淵)    |
|                                | 1卷1冊(零本, 所藏本:卷4), 朝鮮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3行24字, 紙質·楮紙  |                 | 林榮澤                              |
|                                | 1卷1冊(零本, 所藏本:卷12), 朝鮮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3行24字, 紙質·楮紙   |                 | 國立中央博物館                          |
| 陳壽(晉)傳, 羅貫中(明)編, 周曰校(明)        | 2卷2冊(零本, 所藏本:卷10, 卷12), 朝鮮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3行24字, 花紋魚尾(黑魚尾混在), 紙質·楮紙                             | 刊記:歲在丁卯耽羅開刊     | 수경실<br>(박철상)                     |
|                                | 1卷1冊(零本, 所藏本:卷12), 朝鮮木版本, 四周雙邊, 有界, 13行24字, 花紋魚尾(黑魚尾混在), 紙質·楮紙                                  |                 | 雅何室<br>(김영진)                     |
| 羅貫中(明)著,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 1卷1冊(零本), 朝鮮木版本, 30×20cm, 四周雙邊, 半郭:21.5×18cm, 有界, 13行24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 一葉花紋魚尾, 紙質·楮紙           | 漢文, 楷書          | 韓國國學振興院<br>풍산류씨 충효당              |
|                                | 1冊(卷3), 朝鮮木版本, 31×22cm, 四周雙邊, 半郭:21.7×17cm, 有界, 13行24字, 內向一葉花紋魚尾                                |                 | 啓明大學校<br>[고]812.35-나관<br>중사      |
|                                | 零本2冊(卷1,2), 朝鮮木版本, 30.2×21.7cm, 四周單邊, 半郭:20.2×17.6cm, 有界, 13行24字, 註雙行, 上下白口, 上下內向二瓣花紋黑魚尾, 紙質·楮紙 | 版心題:三國真義, 17世紀刊 | 東學教堂(상주)29-0084~0085             |
|                                | 零本1冊(卷4), 木版本, 30.9×21.9cm, 四周單邊, 半郭:21.3×17cm, 有界, 13行24字, 上下內向魚尾不定, 紙質·楮紙                     |                 | 忠孝堂(安東)20-1557                   |

책의 크기는 청주박물관본을 기준으로 하면 30×21.7cm, 半郭은 21.4×17cm이며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다. 또 조선목판본으로 有界에 13行 24字로 되어 있으며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이다. 版心題는 “三國演義”이며, 卷末題에 “三國志傳通俗演義”라고 되어 있고 刊記는 “歲在丁卯耽羅開刊”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판본마다 책의 크기·半郭·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刊記 등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몇 차례의 간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紙質이 楮紙인 점과 註雙行, 13행 24자, 판심제는 동일하다.

근래 박재연은 조선판본이 周曰校甲本の 覆刻本임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주왈교갑본의 출판시기와 조선복각본의 출판시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재연은 이 판본이 周曰校甲本の 覆刻本이며 주왈교본 갑본과 을본 모두 수염자의 “引”을 “嘉靖壬午”가 아닌 “嘉靖壬子”로 일치하고 있어서, “壬子”가 “壬午”의 오기가 아니라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던 《삼국지연의》의 또 다른 모본이 위 두 사람의 리과 序文을 실어 1552년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중국에서의 주왈교본 최초 간본은 기존의 만권루본(1591)보다 39년 앞선 1552년으로 잡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sup>36)</sup>

그러나 이에 대해 陳翔華와 周文業은 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陳翔華는 周曰校初刻本은 萬曆 19년(1591)의 插圖本이며, 주왈교가 판각활동을 한 시기는 주로 萬曆年間(1573-1619年)이기에 “嘉靖壬子”(1552)는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또 萬卷樓主人인 주왈교가 간행한 21종의 서적이 모두가 萬曆年間에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嘉靖壬子”(1552)는 “嘉靖壬午”(1522)의 誤記로 보고 있다.<sup>37)</sup> 반면 周文業은 插圖本(乙本)이 初刻일수도 있고, 또 無插圖本(甲本)이 初刻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왈교본의 初刻年代는 萬曆年間으로 보며 “嘉靖壬子”는 “嘉靖壬午”의 誤刻이 아니라 주왈교본과 하진우본이 공동저본으로 삼아 발간했던 또 다른 판본의 시기로 보았다.<sup>38)</sup> 왜냐하면 “嘉靖壬子”는 주왈교본과 하진우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에 두 판본이 같은 해에 우연히 간행되었다고 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 日本의 中川諭는 夏振宇本과 비교하면서 주왈교갑본의 간행시기는 萬曆 15年 前後, 또 이탁오비평본의 가장 빠른 간행은 萬曆 30年 전후로 보며 夏振宇本의 간행시기를 萬曆 15年에서 萬曆 30年

36) 박재연, 《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역락, 2012년 12월, 243쪽.

37) 陳翔華, 〈周曰校刊三國志通俗演義의 初刻年代問題〉,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년 제1기.

38) 周文業, 〈論三國演義幾種周曰校本의 先後問題〉, 《第十二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 復旦大學, 2013년 8월 28일, 41-47쪽 참고.

전후로 추정하였다.<sup>39)</sup>

결론적으로 주알교갑본의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각기 다른 견해가 난무한 상황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주알교갑본이 嘉靖壬子年(1552)에 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壬子”가 “壬午”의 誤記도 아니며, 주알교본과 하진우본이 공동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판본의 시기가 곧 “嘉靖壬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 周日校乙本(插圖)이 初刻으로 보이지는 않고 周日校甲本(無插圖)이 몇 년 앞선 시기에 출간하였으며 대략 萬曆年間(대략 1582-1585年間)에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周日校本의 국내 출간문제이다. 이 문제는 朝鮮覆刻本에 “歲在丁卯耽羅開刊”이라는 刊記부터 시작된다. 金屬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丁卯年을 1567년까지 소급하여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가 나온 이후에는 “1627年”과 “1687年說”로 압축된다.

박철상은 “1627년설”에 대하여 임진왜란(1592-1598)이 끝난 직후에는 조선의 출판시스템이 붕괴된 출판공황의 시기라서 불가하다고 보고 孝宗年間に 들어와 안정을 찾게 된다며 “1687년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龜甲紋으로 된 표지 紋樣이 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제주도의 책판기록에 이 책의 서목이 남아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필자는 “1627年說”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근거로 1627년은 임진왜란이 이미 30여 년이나 지났고, 제주와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전란의 피해가 적었다는 점,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국내에 연의류 소설이 大量流入으로 인하여 군담류 소설이 크게 인기를 모았던 점에 주목하였다. 또 당시 중국에서의 책 수입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에 출판업의 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근거로 출판업이 비록 임진왜란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도 여전히 출판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實例로 《전

39) 中川諭, 〈關於夏振宇本三國志通俗演義〉, 《第十二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 復旦大學, 2013년 8월 28일, 48-57쪽 참고.

40) 박철상, 〈제주판 삼국지연의 刊年 고증〉, 《한글 중국을 만나다》(한글생활사자료와 삼국지), 화봉문고, 2012년 1월, 49-54쪽 참고.

등신화구해)의 경우 간기가 확인되는 출판기록으로 1549년·1559년·1564년·1600년전후·1614년·1633년·1642년·1704년·1719년·1801-1863년간 등이 확인된다.<sup>41)</sup> 이처럼 임진왜란 직후에도 출판은 여전히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그 외 金萬重(1637-1692)의 《西浦漫筆》을 보면:

今所謂三國志衍義者，出於元人羅貫中。壬辰後盛行於我東，婦孺皆能誦說，而我國士子多不閒讀史，故建安以後，數十百年之事，舉於此而取信焉。(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所謂《三國志衍義》라는 것은 元人 羅貫中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壬辰倭亂 以後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盛行하여 부녀자 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줄줄 외우고 다녔으며, 또 우리나라 선비들도 대부분 史書를 잘 읽지 않았던 고로 建安以後 數百年間의 일들을 모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옳은 것으로 믿게 되었다.)<sup>42)</sup> 《西浦漫筆》 下卷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에 《三國志演義》가 크게 성행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때 판본은 중국에서 들여온 《삼국지연의》 판본이 대부분이겠지만 국내에서 출판된 판본으로 인해 크게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1560년 초·중기에 간행된 金屬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의 경우 중국에서 유입된 후 바로 출간된 점으로 비추어 주왓교본(乙本의 경우 1591년)도 중국에서 출간된 후 30-40년이 지난 1627년에는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1687년에 출판을 하였다면 당시에 많은 善本이 있었는데 구태여 100여 년이나 해묵은 고서를 저본으로 삼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왓교본의 조선복각본이 1627년에 출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렇다고 1687년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1) 민관동 외 공저, 《한국 소장 중국문헌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년 2월, 200-236쪽 참고.

42) 金萬重, 《西浦漫筆》 下卷, 通文館, 1971, 650쪽.

## 3)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

《四大奇書第一種》은 毛綸(號: 聲山)과 毛宗崗父子<sup>43)</sup>의 비평본을 의미한다. 모종강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던 《三國志演義》評點作業을 도우며 소양을 키우다가 마침내 康熙 18年(1679)에 출판하기에 이른다. 최초판본은 60권 120회로 되어 있으며 李卓吾評本을 기초로 꾸며진 책이다. 이것이 바로 醉耕堂本으로 알려진 《四大奇書第一種》(一名 古本三國志四大奇書第一種)이다. 그 후 毛本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출판을 하였으며 출판할 때마다 서명을 바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잘 알려진 書名으로 《四大奇書第一種》·《第一才子書》·《貫華堂第一才子書》·《綉像金批第一才子書》·《三國志演義》·《三國演義》등이 있다. 康熙 18年(1679)에 간행한 醉耕堂本 《四大奇書第一種》에는 金聖歎의 서문이 아닌 李漁의 序文이 실려 있다. 후에 나온 金聖歎의 서문은 卷頭에 “順治甲申年(1644年) 嘉平朔日 金人瑞聖歎氏題”라는 金聖歎 서문이 있고 目錄 앞에는 “聖歎外書, 茂苑 毛宗崗序始氏評, 聲山別集, 吳門杭永資能氏定”이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金聖歎의 서문이다. 근래 이 서문(1644년)이 僞托임이 밝혀졌다. 그 근거로 이 책의 처음 출판시기가 1679년이고 毛綸이 처음 평점을 시작한 시기도 康熙 3年(1664)인데 이미 金聖歎의 서문이 나왔다는 점과 金聖歎(1608-1661년)은 1661년에 이미 죽었다는 점, 그리고 金聖歎이 第六才子書(《莊子》·《離騷》·《史記》·《杜詩》·《水滸傳》·《西廂記》)를 말하면서 《三國志演義》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三國志演義》에 대한 평가도 높지 않다는 점, 또 초기 毛本에는 金聖歎의 서문이 아닌 李漁의 서문이 있었다는 점, 등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모종강이 책의 상업성과 품위를 높이기 명성 높은 金聖歎의

43) 毛綸(1612년 전후-1675년 전후)은 江蘇省 蘇州출신으로 字는 德音이며 號는 聲山이다. 그는 학식이 뛰어나 文名이 높았으며 당시 극작가 尤侗과도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失明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評點作業에 참여하여 康熙 5年(1666年)이전에 이미 《三國志演義》와 《琵琶記》의 평점을 하였으나 출간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에게 모종강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의 아들 毛宗崗(1632-1709 或 1710년)은 字가 序始이고 號는 子庵이다.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삼국지연의》를 개작하였다. 沈伯俊, 《三國演義新探》, 四川人民出版社, 2002년 5월, 72-73쪽 참고.

서문을 집어넣어 독자를 기만하였다는 것이다.<sup>44)</sup> 사실 《貫華堂第一才子書》의 貫華堂도 김성탄의 書齋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의 국내 유입은 대략 肅宗年間(1675-1720年)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의 각 도서관에 소장된 《三國志演義》版本은 대부분이 金聖歎原評, 毛宗崗評點의 版本이고 그 외에 國內 출판본으로는 《四大奇書第一種》(혹은 《貫華堂第一才子書》)의 版本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국내 출판본 《四大奇書第一種》의 경우 김성탄의 原評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사실 최초 간행본인 康熙 18年(1679) 醉耕堂本 《四大奇書第一種》에는 金聖歎의 서문이 아닌 李漁의 序文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 국내에서 출간하면서 底本으로 삼은 것이 《貫華堂第一才子書》이기에 이 책을 저본으로 인쇄하면서 원래의 書名인 《四大奇書第一種》을 가져다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국내에서 출간된 《三國志演義》의 서명은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鼎峙志》(內題는《貫華堂第一才子書》) 등이 있지만 구성과 내용과 모두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貫華堂第一才子書》는 “金聖歎原評, 毛聲山批點”이라고 한 반면 《四大奇書第一種》은 “金聖歎原評, 毛宗崗評”이라고 기록된 것이 많다. 이 책의 구성은 卷首에 김성탄의 서문, 讀三國志法(二十五則), 凡例(十則), 總目(120回), 圖像(20葉 40幅), 原文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第一卷 윗머리에 “四大奇書第一種之一, 聖歎外書, 茂苑毛宗崗序始氏評.”이라고 되어 있다. 그 외 總評과 眉批가 있다.

또 초기 毛本은 60권 120회로 되어 있지만 간행을 거듭하면서 卷數와 行款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貫華堂第一才子書》 20권 20책(毛宗崗評과 讀三國志法, 回目, 그림이 들어간 卷首 1권 포함) 120회로 구성되었으며 行款은 12행 26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조선간행본과 일치된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림까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모종강 평본의 覆刻本임이 확인된다.

이 책은 肅宗年間(1675-1720)에 유입되어 늦어도 英·正祖年間(1725-1800

44) 黃霖, 〈有關毛本三國演義的若干問題〉, 《三國演義研究集》,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3년 12월. 그 외 沈伯俊, 《三國演義新探》, 四川人民出版社, 2002년 5월, 75쪽 참고.

年)에는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판에 대하여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박재연은 “毛評本은 19세기에 복각되어 20권 20책의 형태로 널리 유행하여 지금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다”<sup>45)</sup>고 하였다. 필자가 보는 견해로 이 책은 늦어도 英·正祖年間(1725-1800年)에는 판각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근거로 李瀼 (1681-1763)의 《星湖僊說》에

三國演義 ……[中略]…… 在今印出廣布. 家戶誦讀. 試場之中, 舉而爲題, 前後相續, 不知愧恥, 亦可以觀世變矣. 《三國演義》……[中略]…… 그런데 지금은 간행되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집집마다 널리 읽히고 과거의 試題로까지 내 걸리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세태가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46)</sup> 《星湖僊說》類選九

《星湖僊說》은 李瀼이 약 40세부터 쓰기 시작하여 80세까지의 기록을 후손이 정리한 문집이다. 그러면 대략 1720년부터 1760년까지의 기록에 해당된다. 1700년대 초·중기에는 이미 《삼국지연의》가 대량 출간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sup>47)</sup> 또 李瀼이 쓴 《閑說話》라는 책에 모종강의 〈讀三國志法〉이 필사되어 있다.<sup>48)</sup> 물론 이것이 국내 간행한 毛本에서 필사한 것인지 또는 중국판을 필사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간행된 毛本일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 이처럼 1700년대에의 각종 기록에 毛本の 흔적이 만연한데 구태여 古書籍에 해당하는 周曰校本을 읽고 또 출간하였을까? 하는 의구점이 남기 때문이다.

45) 박재연, 《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역락, 2012년 12월, 207쪽.

그 외 유탁일도 이 책이 곧바로 판각되어 주왈교본을 대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대략 19세기에 들어서 판각되었다고 보고 있다. (柳鐸一, 〈三國志通俗演義의 傳來版本과 시기〉, 《碧史李佑成先生停年退職紀念國語國文學論叢》, 여강출판사, 1990년, 773쪽) 반면 이은봉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숙종연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李殷奉, 〈삼국지연의의 수용양상 연구〉,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년 12월 34-35쪽) 또 정원기도 1700년 전후로 보고 있다. (정원기, 《정역 삼국지》 1, 서문, 2008년 10월).

46) 李瀼, 《星湖僊說》類選九.

47) 그러나 박철상은 이 문장이 조선복각본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의 출판과 유통으로 보고 있다.

48) 이익, 《閑說話》, 국도관 [한貴古朝] (31-153), 43-58쪽. 이 책은 이익이 참고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자료에서 베껴 모은 것이라 한다. 前掲書, 李殷奉의 박사학위논문, 26쪽 참고.

그 외에도 1700년대에는 출판이 왕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肅宗 34年(1708)에 顯宗實錄字로 간행된 《世說新語補》나 대략 英·正祖年間(1725-1800年)에 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世說新語姓彙韻分》과 《皇明世說新語》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시기에 毛本 역시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1679년 중국에서 최초 간행한 《四大奇書第一種》을 국내에서는 100년도 더 지난 1800년대에 들어와 간행되었다고 보기에 시간적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 3. 결론

平話本 《三國志平話》는 고려말에 이미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羅貫中本 《三國志通俗演義》는 대략 1522년-1560년 사이에는 유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 국내에 유입된 《三國志演義》는 대략 1560년대 初·中期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곧 金屬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이다. 이 책은 12권 12책 240칙으로 구성된 책으로 嘉靖 壬午本(1522년)과 周曰校本 사이에 출간된 책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逸失된 판본을 覆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周曰校本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가 간행되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주왈교갑본이 嘉靖 壬子年(1552)에 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周曰校本과 夏振宇本이 共同底本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판본의 출간시기가 곧 “嘉靖壬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 周曰校甲本(無插圖)은 周曰校乙本(插圖)보다 몇 년 앞선 시기에 출간(萬曆年間[1582-1585年間])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책의 국내 출간은 1627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근거로는 임진왜란이 지난 지 이미 30여 년이나 되었고,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란의 피해가 적었다는 점,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국내에 연의류 소설의 大量流入과 군담류 소설의 흥성, 또 임진왜란 이전에 비해 출판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복원

과 지속적인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1687년에 출판을 하였다면 당시의 좋은 善本을 마다하고 구태여 100여 년이나 해묵은 고서를 저본으로 삼았을까? 하는 의구점 등에 비추어 주알교본의 조선복각본은 1627년에 출판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외 현재 한국의 각 도서관에 소장된 《三國志演義》의 版本은 대부분이 金聖歎原評, 毛宗崗評點의 版本이고 이외에 國內版으로는 모종강 평본의 覆刻本인 《四大奇書第一種》(貫華堂第一才子書) 版本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책은 肅宗年間(1675-1720)에 유입되어 늦어도 英·正祖年間(1725-1800年)에는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0년대에는 국내의 출판업이 왕성하였다는 점과 그 외 毛本關聯 서지기록을 감안해 보면 이 시기에 毛本 역시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또 중국에서 1679년에 간행된 이 책을 국내에서는 1800년대에 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三國志演義》는 1560年代 頃, 1600년대 초·중기, 1700년대 초·중·후기에 걸쳐 각기 다른 版種으로 原文出版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후 대략 1800년대 중기로 들어와 翻譯出版된 坊刻本(京本, 安城本)이 나타난다. 翻譯出版에 대한 연구는 紙面의 부족으로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周書》, 東夷傳, 高句麗條.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影印本).  
 《老乞大》, 韓國學中央研究院[C-138], 47a-7b).  
 黃霖, 《三國演義研究集》,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3년 12월.  
 沈伯俊, 《三國演義新探》, 四川人民出版社, 2002년 5월.  
 오순방 외 공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울산대출판부, 1993년.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年.  
 정원기, 《정역 삼국지》 1, 서문, 2008년 10월.

- 박재연·김영교주, 〈새로 발굴된 조선 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하여〉, 《三國志通俗演義》, 학고방, 2010.
- 박재연, 《중국 고소설과 문헌학》, 역락, 2012년 12월.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아세아문화사, 2007.10.
-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亞細亞文化社, 2001年.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學古房, 2003年.
- 민관동 외 공저, 《한국 소장 중국통속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년.
- 민관동 외 공저, 《한국 소장 중국문언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학고방, 2013년.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간본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년 8월.
- 龔敏, 〈明代出版家楊爾曾編撰刊刻考〉, 《文學新論》, 2009年 12月 第10期.
- 劉世德, 〈三國志演義朝鮮銅活字殘本研究之一·二〉, 《前近代 동아시아 小說의 交流》, 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학술회의, 2010.8.10.
- 金文京, 〈朝鮮王朝實錄中有關三國志衍義記載的銓釋〉, 《第十一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位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嘉義大學, 2012.8.
- 陳翔華, 〈周曰校刊三國志通俗演義的初刻年代問題〉,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年 第1期.
- 金文京, 〈周曰校甲本三國志演義簡介〉, 《第十二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位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復旦大學, 2013.8.28.
- 周文業, 〈論三國演義幾種周曰校本的先後問題〉, 《第十二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位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復旦大學, 2013.8.28.
- 中川諭, 〈關於夏振字本三國志通俗演義〉, 《第十二屆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位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復旦大學, 2013.8.28.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문화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30집, 2012.1.
-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東洋漢文學研究》 제30집, 2010년.
- 박철상, 〈제주판 삼국지연의 刊年 고증〉, 《한글 중국을 만나다》(한글생활사자료와 삼국지), 화봉문고, 2012년.
- 이은봉, 《삼국지연의의 수용 양상》, 인천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6.12.

〈中文提要〉

根据文献记录, 中国陈寿的史书《三国志》传入韩国的最早记录是韩国三国时代(BC57-AD668年)末期, 而平话本《三国志平话》传入韩国内的时期可能是高丽末期, 而罗贯中本《三国志通俗演义》也大略於1522年-1560年间传入朝鲜. 从当时的传入情况来看, 很可能嘉靖本《三国志通俗演义》(1522年)也早就传入了韩国.

在朝鲜时代(1392-1910年)曾几次出版过中文版和韩文版的《三国志演义》, 比如罗贯中的《三国志通俗演义》、周日校的《新刊校正古本大字音释三国志通俗演义》、毛宗岗的《四大奇书第一种》(贯华堂第一才子书)等, 其中《四大奇书第一种》本最为广泛流传.

传入韩国内的《三国志演义》大概是1560年代初·中期最早在国内出版的, 这就是金属活字本《三国志通俗演义》. 其书构造为12卷12册240则, 出刊时期大概在嘉靖壬午本(1522年)和周日校本中间, 此书可能是在中国已经逸失的某种版本的覆刻本.

笔者认为, 周日校本的初刻时期可能是万历年间(1582年-1585年间), 而且“嘉靖壬子”年是周日校本和夏振宇本的共同底本的刊行时期. 另外, 周日校本的国内刊行时期推定为1627年的可能性很大, 也存在1687年的可能性.

现在在韩国各图书馆所藏的《三国志演义》版本多半都是金圣叹原评, 毛宗岗评点的版本, 此外的韩国内出版本大部分为毛宗岗批评的覆刻版《四大奇书第一种》(贯华堂第一才子书)版本, 此书广泛地分布於朝鲜. 据此可推定朝鲜肃宗年间(1675年-1720年)此书已传入朝鲜, 然后至少在英·正祖年间(1725年-1800年)此书已有了出刊的可能性. 1700年代, 韩国内的出版业再度旺盛, 另外从一些相关的毛本书志记录来看, 这时期毛本的《四大奇书第一种》出刊的可能性也很高. 其後大概至1800年代中期就出现了翻译出版的坊刻本(京版本, 完版本, 安城版本).

關鍵詞: 三國志通俗演義, 周日校本, 四大奇書第一種, 活字本, 流入, 出版.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